

우리 만화의 오늘과 내일

한국만화가 대중에게 선보여진지 내년으로 100여 해가 된다. 이와 관련 2009년 한국만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한국만화100주년위원회'(위원장 김동화 한국만화가협회장 외 3인)가 지난 6월 2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애니시네마에서 출범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전국시사만화협회, 한국시사만화회 등이 중심이 되어 꾸려진 한국만화100주년위원회는 앞으로 한국만화 100년의 역사를 정리한 연감을 발행하는 것을 비롯해 전시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 만화 논문 공모,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시사만화 기념관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만화의 역사를 살펴보고 시대별 대표작들을 찾아보았다.

만화의 등장

한국 만화의 시초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는 만화의 정의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비평적인 쟁점이 담긴 문제이다. 다만 만화언어의 원형으로서 다수가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명시우도', '10세기경' 등 처럼 연속적인 그림과 그 밑의 글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양식이다. 과장된 캐릭터, 선화 위주의 화풍, 풍부한 이야기를 담은 이미지, 연속적인 형상 등 한국의 전통 예술은 만화언어와 공통분모가 많은 편이다. 사실 더 멀리 고구려 고분벽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국만화의 유구한 전통을 억지로 강조하는 것 이외에는 효용이 없을 듯하다.

더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은, 현대만화부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오랜 만화언어적인 전통이 있었으나, 현대만화의 주요 문법이나 개념은 주로 19세기 말엽 일본을 통해서 유입된 영미권 중심의 신문풍자 카툰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미 여러 만화적인 이미지가 활용되었으나, 공식적으로 한국 최초의 현대만화로 꼽히는 것은 1909년 6월 2일 창간된 《대한민보》에 실린 이도영의 한 칸 만화다. 이후 1928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안석주의 만문만화(한 칸 만화와 시평 에세이를 같이 엮는 방식) 등 독자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김규택·노수현 등으로 대표되는 신문 풍자만화 이상의 본격적인 이야기 만화로 발전하기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더 지나야 했다.

만화 전성기 서막

광복과 함께, 한국만화는 여명기를 지나서 새로운 시기로 들어섰다. 그 동안 억눌렸던 한국어 출판물에 대한 붐이 일어났고, 만화도 그 속에서 새로운 지면을 얻어 나갔다. 그리고 1948년 김용환의 주도로 한국 최초의 만화 전문 잡지인 《만화행진》이 만들어졌고, 이후 한동안 만화는



여러 방면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프로파간다(propaganda)용 뼈라에 만화가 적극 활용되었으며, 한국전쟁 말기부터 권당 20페이지 내외의 조악한 품질의 대중요락만화인 《떼기만화》 판형들이 좌판을 통해서 보급되었다. 떼기만화에는 최상권의 《헨델박사》(1952) 등 모험물, SF 장르가 많았는데, 이로써 각종 이야기 만화가 급격하게 인기를 끌었다.

한국전쟁 이후에 잡지 창간은 더욱 가속되었고, 김용환, 신동현, 박기정 등 많은 작가가 한국만화의 '황금시대' (미국에서 만화가 질적·양적·산업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여 대중문화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던 1930~195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인 'Golden Age'에서 차용했음)를 시작했다.

잡지 《만화세계》를 내던 출판사인 만화세계사는 1955년부터 200여 페이지짜리 고급 장정을 한 판본으로 큰 인기를 끌며 김종래의 '눈물의 수평선' 등 히트작을 낳았다. 동시에 길거리 좌판에서도 서봉재의 '밀림의 왕자' (일본만화 '소년 케니아'의 도작) 등을 통해서 만화가 대중에게 크게 각광받았다. 하지만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서점용 고급 판형은 점차 시장성을 잃어버리고, 1958년에는 책을 빌려보는 '대본소'라는 유통구조가 들어섰다. 초창기의 대본소는 많은 만화를 적은 비용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효용을 지니고 있었고, 덕분에 더욱 많아진 만화는 더욱 많아진 만화인구에게 다가설 수 있었다. 그 속에서 한국만화는 극화체 만화, 만화체 만화, 순정만화라는 큰 줄기 아래에서 다양한 장르로 분화할 수 있었고, 한국적 감수성 위에서 일본의 드라마 만화, 미국의 슈퍼히어로 만화, 유럽의 모험물 등이 영향을 끼치며 골고루 유입되어 박기당, 엄희자, 산호, 신동우 등 기라성 같은 작가가 그 기세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대본소 체제만으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에 이은 1961년 사전심사 도입과 1966년의 대본소유통독점화로 이어져서 한국만화의 짧았던 황금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린다.

1960~1970년대의 억압적인 상황에서, 대본소 만화는 질적인 급락을 계속했다.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작가군은 공장제로 변해가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창작의 열기가 점차 식어 가면서 대본소 시스템에서 데뷔한 일련의 작가군과 세대적으로 단절되었다. 당시 질적 성장을 거듭하던 일본만화에 대한 도작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출판사 및 유통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만화는 무조건 많





〈삽화〉 이도영 (1909년 작)

일제시대인 1909년 관재 이도영이 민족지 <대한민보> 창간호에 그렸던 '최초의 시사만화'다. 양복 차림을 하고 지팡이를 든 한 신사의 입 부분에 연결된 네 개의 줄에 표어 같은 글귀는 '대한민보' 네 글자로 창간목적을 사행시를 하듯이 썼다. 대국을 똑바로 보고 민심을 합해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기관이 되며 다양한 편집 태도로 사실보도를 하겠다는 다짐이다. 1년 동안 연재됐으나 한일합방 후 <대한민보> 자체가 폐간됐다.

〈코주부 삼국지〉 김용환 (1952년 작)

독특한 코를 한 '코주부'를 연상시키는 작고 동글동글한 캐릭터들을 등장시켰고 삼국지를 각색해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갖췄다. 과장되게 코가 큰 캐릭터로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줬다. 정치선전 만화가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한국전쟁 외중에 독특한 캐릭터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52년 11월 학생잡지 <학원>에 연재를 시작해 수년간 연재를 계속했다. 고전과 해학적인 메시지를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전달한 거의 최초의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 1953년부터는 단행본을 발간하기도 했다.

고바우영감
金星煥全集



〈고바우 영감〉 김성환 (1955년 작)

'서민'의 입장을 대변한 캐릭터인 고바우 영감을 등장시켜 당대의 사회상을 비판, 풍자하는 얘기를 했다. 50~60년대 박정희 정권 초기의 사회상을 고발하는 내용의 시사담론을 주로 다루기 시작해 80년대까지 독재정권하에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풍자적으로 대신해주는 캐릭터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바우는 길다란 얼굴에 삐죽 튀어나온 턱,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있다. '고바우 영감'은 네 컷 형식의 만화다. 연재는 정치적 탄압으로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했다. 작가 김성환 화백은 1958년 '경무대 똥똥' 만화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만화의 사회적 발언력을 보여준 만화 100년사에 의미 있는 작품이다.



〈꺼봉이〉 길창덕 (1970년 작)

'60년대 어린이 명랑만화 주인공들 대부분이 천재, 우등생, 모범생 중심인데 반해 공부는 못하지만 따뜻한 정과 발랄한 품성을 지닌 캐릭터 내세워 크게 인기를 끌었다.

70~80년대까지 연재를 계속해 그 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 또렷이 각인돼있는 캐릭터다. 현실에 가까운 어수룩한 캐릭터로서 만화주인공이 현실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 대부분 사건이 가족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 구조로 그 시절 가족애를 표현했다는 점 등이 만화사(史)에서 이정표 역할을 한다.



〈로봇태권V〉 김형배 (1976년 작)

'로봇'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작품으로 아이들의 지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 일본의 대표적 만화작품 캐릭터 '아톰'이 국민영웅으로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어린이로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심어준 것 같이 산업화, 정보화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의 원동력이 된 작품이다. 김형배 화백이 그리고 김청기 감독의 손을 거쳐 탄생한 한국 최초의 만화영화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2007년 신시네아트가 복원해 화제를 몰고 왔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서울시가 국내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1999년 설립, 서울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창작 및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영화제, 정보실 운영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만들면 되는 공산품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다. 작가의 권리도, 작품의 수준도, 산업적 활로도 가히 암흑기라는 표현이 적합한데, 이 시기는 임창 등을 주축으로 한 반합동연합 운동으로 대본소 독점체제가 깨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성인만화와 명랑만화의 성장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만화는 성인만화와 명랑만화라는 두 갈래 길에서 몰래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1972년 창간된 스포츠신문 《일간스포츠》가 고우영의 ‘임격장’을 시작했고, 이것은 일간지와 성인만화의 성공적인 랑데부를 이끌어냈다.

굵직한 드라마의 연재극화(방학기의 ‘바리데기’ 등)와 잡담적 사변과 줄거리가 수시로 교차하여 마치 이야기꾼의 재담을 직접 듣고 있는 듯한 ‘노가리 만화’(고우영의 ‘삼국지’ 등)가 그 대표적인 장르다. 이외에도 박수동의 기념비적 작품 ‘고인돌’이 1974년부터 연재, 성에 관한 담론을 풀어나갔다. 또한 1964년 창간된 《새소년》 등의 어린이 종합잡지를 중심으로 명랑만화 장르가 꽃

피었다. 이들은 일상적인 풍경과 상황 속에서 슬랩스틱 코미디와 교훈을 이끌어내는 만화체의 이야기들이었는데, TV의 ‘시트콤’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중 특히 길창덕의 ‘꺼병이’, 윤승운의 ‘요철 발명왕’ 등은 대단한 인기를 구가했다.

물론 어린이 잡지에서 명랑만화가 가장 인기 있는 장르이기는 했지만, 기존 SF나 모험물에 대한 관심 역시 이어졌다. 잡지 연재에서 시작해서, 후속편들을 문방구 유통망을 통한 단행본 단위의 직접 판매를 시도한 고유성의 SF물인 ‘로봇트 킹 연작’이 대표적인 사례다.

순정만화의 부흥

광주민중화운동으로 시작한 1980년대가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고도 성장기였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만화에서 그 첫 번째 조짐은 대본소에서부터 나왔다. 시대의 욕구를 잘 반영한 이현세의 ‘공포의 외인구단’의 대성공은 장편 극화의 붐을 촉발했고, 박봉성, 고행석, 허영만 등 1980년대를 이끌어나간 굵직한 대본소 극화 작가들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고도성장 사회에서 비극적인 도전을 반복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이후에 하나의 장르처럼 굳어져서, 유사한 스토리와 화풍을 계속 재생산해 나갔다.

두 번째 조짐은 《보물섬》의 창간이었다. 《보물섬》은 만화전문잡지를 표방하며 기존의 종합 어린이 오락지보다 더욱 적극적인 작가 및 작품군을 거느렸고, 상업적인 성공을 이뤘다. 특히 보물섬은 소년 취향 만화와 여성 취향 만화가 고루 섞여서, 양쪽 장르의 독자를 고루 만족시켰다. 엄희자/민애니로 대표되는 초창기 전성기가 지나간 이후 표면에서 잊혀 졌다가 동호회 등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하던 순정만화 장르 역시 1980년대 말에 화려하게 컴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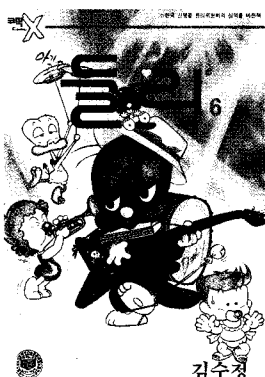
그리고 1988년 창간된 순정만화 전문지 《르네상스》를





〈이오니아의 푸른별〉 황미나 (1980년 작)

만화계의 '소녀 마니아' 독자층을 양산한 작품. 가상국 이오니아에서 쿠데타와 정치적 음모 속에서 벌어지는 젊은 영웅들의 사랑과 투쟁의 이야기다. '사랑 이야기' 중심으로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 벗어날 수 있는 '환타지'와 '로맨스'를 소녀들에게 주는 이야기이지만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저변에 깔려 있다. 유럽의 귀족사회의 화려한 복식을 그려내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소녀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은 작품이다.



〈공포의 외인구단〉 이현세 (1983년 작)

80년대를 대표하는 스포츠만화. 작가 이현세를 한국만화계의 대표 인물로 부상시키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 까치머리 주인공 오해성과 엄지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편 '헝그리 정신'을 나타낸 또 하나의 영웅신화로 가진 것 없는 이가 인간의 의지 하나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에 많은 독자들이 쾌감을 느꼈다.

엄축한 80년대 사회구조속에서 말 한번 제대로 못하는 서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준 작품으로 만화사적 의미가 있다.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던 '한국형 영웅'을 잘 묘사한 작품이다.



〈돌리〉 김수정 (1983년 작)

'국민만화'로 불릴만큼 돌리는 양증맞은 '아기 공룡' 캐릭터로 고루 사랑을 받았다. 돌리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인 남성중심 이데올로기 사회인 우리나라의 가정을 배경으로 반항적인 캐릭터를 제시한 파격적인 것이다. 사회의 억눌린 속박이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독자가 희열을 느끼게 하면서도 의인화한 표현으로 당국의 검열을 피하고 거부감을 줄인 수작이다. 캐릭터에 대한 전국민의 사랑만으로도 만화사의 기념비다.

〈달려라 하니〉 이진주 (1985년 작)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트라우마'가 있는 소녀 '하니'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리기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그렸다 '신 여성상'을 보여준 작품으로 이전 만화들에서는 순종적이고 참한 이미지의 여성상만 등장했는데 반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하니의 모습이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주제로 한 순정만화지만 공주가 아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캐릭터로 독자의 사랑을 받은 독특한 작품이다.



〈한겨레 그림판〉 박재동 (1988년 작)

80~90년대 풍자와 위트의 전형을 보여 준 '비판 만화'다. 황지우는 박재동이 그린 인물의 성격은 선악이분법적 '관상'에 의해 금방 구별된다고 분석했다. 이전 시사만화는 사회상에 대한 본질적 모순 건드리기 힘들었다. 반면 한겨레 그림판은 자유로운 편집환경에서 성역 없는 비판과 풍자로 시사만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

〈순정만화〉 강풀 (2003년 작)

'온라인 만화', 일명 '웹툰'의 시대를 연 작품이다. 2003년 10월 24일부터 미디어 다음(www.daum.net)에 연재되어 인터넷 만화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강풀 신드롬을 일으켰다. 2000년 이후 활발해진 웹툰의 이야기는 대부분 자신의 일상을 만화로 그리는 일명 '다이어리 툰'이었다. 하지만 강풀이 등장해 일정한 서사구조의 웹툰을 선보이자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1980년대의 대표작인 보물섬, 공포의 외인구단, 북해의 별, 동전한개와 불청객

통해서 그들의 암중모색의 성과를 유감없이 떨쳤다. 김진/김혜린 등으로 대표되는 장쾌한 대하서사극은 순정만화 특유의 감성과 드라마 구조가 결합하여 걸작을 탄생시켰고, 강경옥 등으로 대표되는 섬세한 일상과 감정 표현은 맹위를 떨쳤다.

1980년대의 세 번째 발전은 만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었다. 만화의 대중친화력과 강력한 표현력에 매력을 느낀 문학이나 민중미술계의 전문적인 관심이 만화 영역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사회참여 의식과 실험성이 강한 작가주의적 작품 경향들이 고개를 들었다. 특히 1987년 창간된 《만화광장》은 그러한 움직임의 정점이었는데, 이론적 논의들과 작가의식이 강한 작품들이 고루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아예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해 온 '민중만화'도 효과적인 선동수단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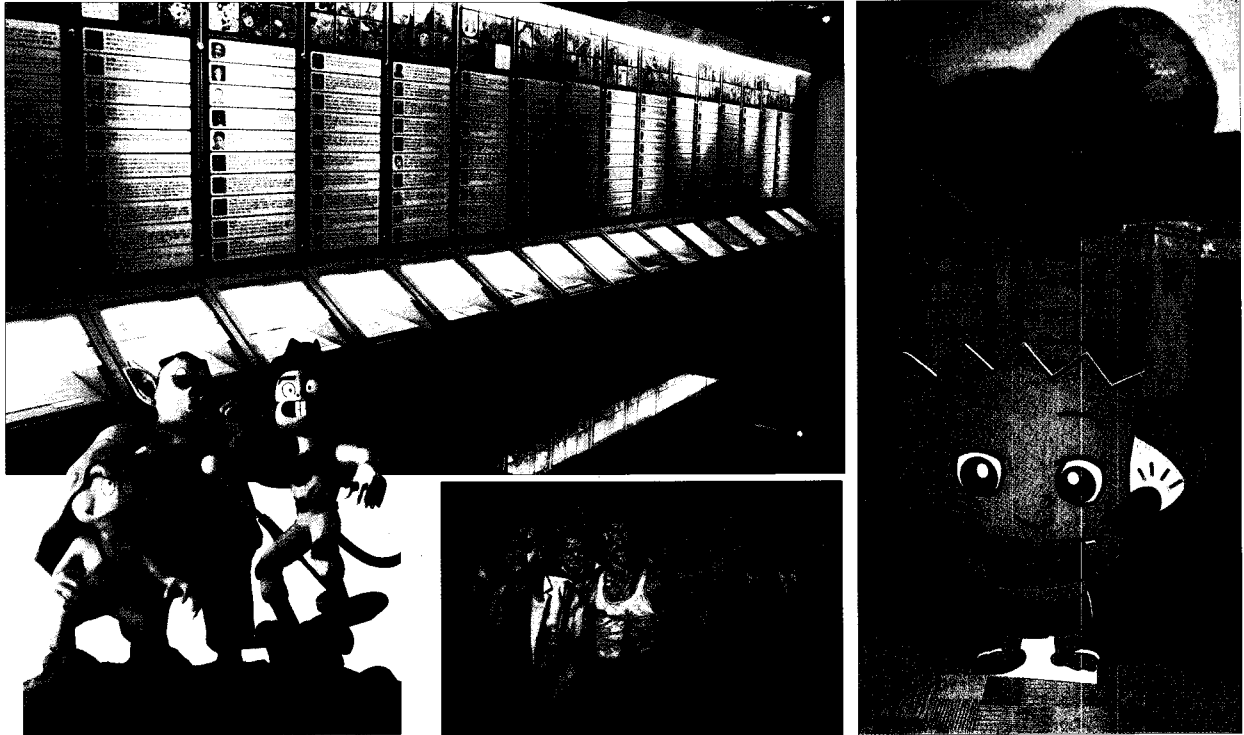
1980년대 전성기의 마지막은, 1988년 창간된 주간지 《아이큐 점프》가 열었다. 일본식의 기업화된 잡지관리 시스템을 수입하고, 주간지라는 빠른 스케줄 및 중고생이라는 특정한 연령층 공략 등은 한국에서는 대단히 신선한 시도였고, 이현세/야설록의 '아마게돈', 이상무의 '제4지대' 등 대담한 시도가 히트로 이어졌다. 하지만 주요 인기 작품이 연재 종료되면서, 잡지사는 떨어져 가

는 인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작가 발굴과 시스템 개혁보다는 너무도 손쉬운 길을 택하고야 말았다. 1989년 말, 결국 일본의 검증된 초히트작인 '드래곤볼'이 한국 라이선스 연재를 시작하면서 한국만화는 1990년대를 맞이했다.

만화시대 활짝 열리다

1990년도 《스포츠 조선》 창간으로 인하여 스포츠 신문들은 만화를 통한 독자확보경쟁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아이큐점프》와 비슷한 컨셉의 소년지인 《소년챔프》 창간이 이어지면서 한국만화의 판은 일순간 희망찬 성장을 보여 주는 듯했다. 이전의 도제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지면을 얻을 수 없었을 법한 새로운 감수성의 젊은 세대들이 속속 데뷔했고, 해적판으로 유입된 다양한 일본만화는 만화의 더욱 넓은 세계를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그 외중에 '어쩐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저녁', '마이러브' 등 소년만화 장르의 일부 인기작들이 단행본 누계 판매 100만부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라면 유익한 자극도 도를 넘어서면 독이 된다. 1994년을 기점으로 한국만화의 양대 메이저 출판사인 서울문화사와 대원은 대대적인 만화사업 확장을 꾀했는데, 연령별로 분화된 다양한 잡지 창간과



시계방향으로, 부천만화박물관에는 각 시대별 주요 작가의 소개와 대표작이 전시되어 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인공인 기영이, 부천만화박물관에서는 신진작가 발굴을 위해 기획전시를 하고 있다. 날아라 슈퍼보동 나오는 캐릭터

일본 만화 단행본 라이선스 수입 강화가 주요 요지였다. 1990년대 중후반 일련의 만화탄압사태를 맞을 때마다 이들은 질적인 개발보다 양적인 확대를 통해서 돌파하려 했고, 급기야는 일본만화 라이선스 경쟁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나치게 많은 종수가 좁은 시장을 강타했고, 시장은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현재까지 그 문제를 이어가고 있다.

계다가 지나치게 쉽게 데뷔한 새로운 세대의 신인작가와 기존 작가군 간에는 명확한 세대적 단절이 이루어졌고, 마치 10대 댄스음악 위주의 가요계처럼 주류만화가 특정 장르, 경향성 위주로 집중되는 기현상을 낳았다.

한국만화의 새로운 가능성

하지만 결국 문제를 풀어 나가는 열쇠를 쥐는 것은 작가와 작품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1990년대의 작가들은 그들의 만화에 대한 열정을 풀어 나갔다. '구태의연한' 기존 장르의 재해석이 그중 하나다. 1980년대 대본소 극화의 유산을 이어받은 드라마틱한 스토리 구조와 비정한 사회에 대한 동시대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윤태호의 'YAHOO', 대본소 무협만화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그 속에 존재론적인 철학을 시간이 정지한 듯한 연출 방식 속에 묘사하는 '남자이야기'의 권가야 등도 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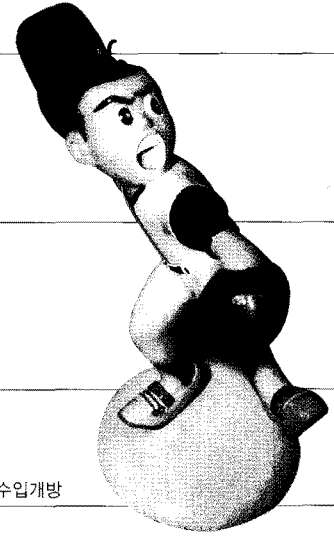
던 명랑만화의 유산 역시, 1990년대 말에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부활했다.

이들은 명랑만화에 날카로운 시사성과 소소한 일상성을 더욱 보강했다. 일간지에 연재되었던 홍승우의 '비빔툰', 김진태의 '시민쾌걸', 정연식의 '또디' 등이 백미다. 과격한 종류의 실험은 주류만화의 방식에 전면적인 반기를 드는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일련의 젊은 작가들이 스스로 '언더라운드'라고 선언하며 기존 지면에서는 담아낼 수 없었던 다양한 표현성과 메세지적 실험을 담아 낸 작품들로 가득한 새로운 잡지들을 만들어 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잡지가 바로 《화끈》과 《히스테리》였는데, 이들 잡지를 중심으로 작가집단이 형성되었다. 두 진영 모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웹진과 종이잡지를 넘나들며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젊은 만화의 확장은, 여성들의 힘에서 나오고 있다. 이진경의 '사춘기', 한혜연의 '금지된 사랑' 등은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오늘날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가득 찬 작품들이다.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순정만화의 대가들이 택한 길이었던 드라마틱한 대하서사시나 일상에 대한 소소한 탐구라는 우회로 없이,

국내만화의 역사

| 시기 | 특징 | 내용 |
|---|--|---|
| 초기역사 | 종교 포교수단 18세기-4칸만화 등장 | 불교이념전파-불화, 유교이념전파-도덕사상전파 신문창간-만화형식의 지면확보 |
| 근대만화의 출발 일제시대 | 1920년대 1930년대 | 저항정신과 계몽정신의 진보, 해학적 역사물 삶에 대한 관조, 철학적 표현, 유머만화 강세 |
| 해방과 전쟁시기 (1945-1950년대) | 해방직후 만화환경 1950년대 만화 정치만화의 변천 오락만화의 발전 아동만화의 시작 미국과 일본만화의 이식 | 아동잡지창간려시, 일본만화유입 이데올로기 및 정치만화, 전쟁만화 찬일파 비판만화, 반공만화의 특화 만화잡지 창간려시, 반공만화의 발전 이야기만화의 단행본화 미국과 일본만화의 대폭 유입시작 |
| 시사만화의 정착과 성인만화시대 | 만화의 사전성의 시작 만화가계문화의 전성기 시사만화의 정착 아동만화의 발전 불량·저질만화시대 통속 성인만화 시대 개막 | 만화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 시작 총판구조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 배급망 구축 시사만화의 비판력 강화 만화잡지의 창간과 민간자유출판체 등장 소수에 의한 독과점출판사들의 불량만화출간 대중오락신문과 통속잡지를 통한 등장 |
| 리얼리즘만화와 민중만화운동, 만화연구 (1980-1990년대) | 리얼리즘만화의 복권 민중만화운동의 전개 1980년대 만화의 특징 1990년대 만화의 특징 | 풍자와 역설, 상징기법의 비판성 강화 만화의 풍자와 해학을 비판력의 대중화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만화잡지등장 만화가계의 쇠퇴, 만화단행본의 전문화시대, 일본 문화의 수입개방 |
| 만화산업진흥과 한국만화의 세계화 (2000년대 이후) | 만화정책 및 만화인프라 구축개시 | 온라인만화의 시장확대 및 오프라인시장 축소 만화산업에 대한 정책개발 본격화 만화정책의 새로운 시도 |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현실을 발언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비단 이러한 페미니즘적 메시지 차원뿐만 아니라, 기존 틀을 크게 뛰어넘는 독특한 미학적 표현의 확장 역시 여성작가들이 선두에 서 있다. 다양한 시각적 스타일의 이애림, 현실적인 주제 의식과 과장된 만화적 비유를 일삼는 최인선 등 수많은 작가들이 활동 중이다.

21세기 우리 만화의 현재와 미래

한국에서의 젊은 만화의 또 다른 중요한 경향성은,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의 활용이다. 언더그라운드 성향 만화웹진 《화끈》의 편집장이기도 한 모해규는 플래시를 활용한 만화,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코믹 스트립 분야의 개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아니면 ‘스노캣’(www.snowcat.co.kr)의 홈페이지처럼, 적극적으로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째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아이완의 ‘점핑’ 시리즈처럼 온라인의 상호작용적 공간에서 새로운 만화독서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다. 독립 출판, 자비 출판이 늘어나는 것도 최근의 공통된 경향이다.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젊은 작가들이, 기존의 굳어진 생산방식과 장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형 출판사들에게 자신의 작품과 작가로서의 미래를 의지하지 않고 싶은 것은 당연한 상황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만화는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학습, 오락,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만화의 역할은 커져가고 있으며, 정부는 문화 산업으로 지목하며 각종 진흥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만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가 달라져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자료제공_ 한국만화박물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